

가장 쉽고 빠른 공부 '법문 듣기'



자재만현 스님의
염불선 이야기 <끝>



염불할때 잡념 끊는 방법

경에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어찌하여 어떤 놈이 나의 옷을 입고, 중인 체하면서 부처를 팔아 온갖 나쁜 짓을 하느냐" 하셨습니다.

때마침 허물을 벗고 나가듯 인간도 수명을 다 살면 이 거짓 몸통이라는 허물을 벗고 나가는 놈(부처님은 영체라 하심이 있습니다. 그 영체는 지은 업을 따라 가는 곳이 있지요. 지은 죄가 지중하던 지옥에 떨어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몸통이 받는 고통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나라하게 볼 수 없다면 도울을 행복시킬 수 없습니다.

삼봉 정도전의 <불씨 잡변>이 나올 때처럼, 사자후하는 이가 없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 불교는 서럽게도 억압당해 살아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동안 지면을 통해 불교의 몸통 중에 겨우 머리 부분만을 대강 소개했다고 봅니다. 약 1년간 연재해서 왜곡된 부처님 말씀을 살필까 했으나, 이제 인연이 다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염불선을 간략히 소개만 해 드렸습니다. 염불시에는 아미타불을 칭명함이 좋으나 관세음보살도 좋습니다. 석가모니불은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선 아미타불만 가지고 말씀하지요.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외치고 마음으로 아미타불께 귀의·참회

한 사건입니다. 이를 부인하는 말은 부처님과 법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대 망어죄로서 삼중고(논, 귀, 입의 기능이 죽음), 사중고(삼중고에 코를 더 포함)로 미래제 다하도하여 과보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실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당히 부처님에 대한 부분만을 두어달 남짓, 불교역사 앞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400년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외쳤듯, 나는 붓다의 무량광, 청정법신비로자나불을 석명(釋明)하는 삼신설(三身說)을 설했습니다. 조만간 나의 미증유의 법설에 동의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정토삼부경 중 가장 짧은 <아미타경>을 일독한 후 '아미타불 무량광 말진진언' (108편)을 한 후, '나무아미타불'을 간단없이 부르십시오. 일념이 안되고 잡념이 끊이지 않는데, 이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면 어려운 법이어서 들로 나뉘어 합니다. 즉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생각으로 아미타불께 귀의하고 참회하며 발원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처음엔 이게 잘 안되나 노력하면 됩니다. 이 공부가 깊어지면 일념이 되어 염불삼매에 진실로 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더욱 깊은 경지에 들게 되며, 드디어 극락 왕성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죽을 때 대소변 가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은 결정코 없을 것입니다.

<춘천 현지사 회주>

■468호 부처는 양산 정토원 원장 정묵 스님의 '염불수행'이 격주로 연재됩니다.

말끝에 단박 깨치기

매주 일요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전국 선원장 초청 법회'를 비롯도 선사, 봉은사, 보문사 등이 주최한 고승 초청법회에 불자들이 운집하고 있다. 법문은 어떻게 들어야 제대로 듣는 것일까. 스님들은, '법문 듣기' 그 자체도 선수행의 과정이라 진지한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지식들이야, 나는 흥인 화상의 문하에서 한번 듣고 말끝에 크게 깨달아 진여본성을 단박에 보았다. 그러므로 이 교법을 후대에 유행시켜 도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보리를 단박 깨달게 하여 각자가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기의 성품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육조단경)

오호종인 스님이 새벽에 혜능 스님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들여 <금강경>을 설해 주었는데, 혜능 스님이 한번 듣고 말끝에 바로 깨달았다는 견설체였다.

이런 이야기를 접한 불자들은 한번쯤 고개를 갸우뚱 했을 것이다.

"한번 듣고 깨달았다고요?"

"그럼 오랫동안 수행할 필요가 없겠네요?"

선사와 대가백의 법문을 듣기 위해 불원천리 전국의 산사로 선지식을 찾아가는 불자들은 다소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하다. 하지만 옛부터 선사들은 '법문 듣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공부법'이라고 말해 왔다.

부처님 당시도 법문 듣고 깨치

조사선에서의 깨달음은 기본적으로 '직지인심 경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형태인데, 이 '직지인심'은 스승의 설법이나 스승과 제자의 문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법문을 듣고 단박 깨치는 '언하변오(言下便悟)'는 혜능 스님의 돈오 체현에서 발달되어 조사선 선제형의 일반적인 방식이 된 것이다. '언하변오'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큰스님들의 사자후를 듣는 즉시 발심하거나 깨닫는 기연(機緣)을 만들어보자.

이러한 언하변오의 돈오경성은 좌선간심(坐禪看心)이라는 인도에서 전래된 혜능 이전의 선법을 극복하고 혜능이후의 중국 선을 세

로운 선으로 열어가게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선종에서 견성의 기원은 대체로 말을 듣는 순간, 행위를 하거나 보는 순간, 자연물의 소리를 듣거나 움직임을 보는 순간에 깨닫는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선지식의 말(법문)을 듣고 깨닫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물론이다. 혜능 이후에 웅성한 마조와 석두 문하의 중국 조사선 전통에서 깨달음의 거의 대부분이 설법과 문답을 통해 견성을 체험하는 '언하변오'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깨달은 언어가 사람사이의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지로 부처님 재세시에도 법회에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청보리화 김재영 지도법사는 <붓다의 대중경성운동>(도교인사)에서 팔리어 <법구경>인 <Dhammapada-Commentry>를 통해 총 299건의 '대중 경성사건'을 확인했다. 부처님 재세시 총 1만2천975명 이상의 대중이 경성수 다원과 이상했음을 경전을 통해 확인한 김법사는 "조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려는 초발심의 단계를 깨달음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자세는 오늘날 깨달음을 특별하고 전문화된 사건으로 신비화하는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고 말한다.

심지법문은 깨달음의 씨앗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스스로의 본성을 보



'법문 듣기'는 발심의 계기가 됨은 물론 깨달음의 기원이 되는 중요한 공부법이다. 사진은 2월22일 조계사에서 열린 선원장 초청법회에서 축서사 주지 무어스님이 상당법문하는 모습.

아 성별게 하는 이심전심의 묘법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 스승은 제자가 본래 가지고 있지만 잊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고 다시 확인해 보도록 자극하고 촉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와 관련 남악회암 스님은 마조 스님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운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를 설명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도 같다. 그대는 기원이 맞았기 때문에 도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깨달음에 필요한 요소는 마음 땅인 '심지(心地)'와 씨앗을 뿌리는 제자의 '발심', 물을 주는 스승의 '직지인심' 및 이 두 요소가 적절히 맞아서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기연' 등이라 할 수 있다.

설법과 문답은 공부의 필요조건

선 공부의 필요조건인 상당설법과 문답을 통한 공부 진행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 발심 >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묻는 '참문(參問)' 또는 '청문(請問)' > 선지식의 응답에 의

만만 얻은 경우 제방 선원에서 참하는 '참구(參究)' > 참구의 결과 해답을 얻어서 선지식에 해답을 확인하는 '감번(槩辨) > 깨달음이 옳다고 인정하는 '인가(認可)' > 불잡은 본성을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하며 과거의 습기를 털어버리고 더욱 본성에 출몰해 가는 '보임(保任)' 등으로 구분된다.

정통 조사선 공부법 회복해야

한국 불교는 최승수 수행법이라고 일컫는 조사선의 간화선법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에서는 '자기점검' 이외에 선지식의 상당설법이나 '지도점검'이 일부 선방을 제외하고는 형식화되거나 사라진 곳이 적지 않은 게 현실. 이에 따라 간화선 참구와 더불어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문답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언하변오'를 가능하게 하는 상당법문과 선문답, 지도점검 등 조사선의 공부과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kjkim@buddhapia.com

설법·문답으로 공부하는 선원들 간화선 대중화 시도 호응 높아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법문, 지도점검을 통해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를 시도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선원과 단체들이 늘어가고 있다.

서울 안국선원, 현정선원, 보림선원, 제주 원명선원, 부산 무심선원 등은 법문을 듣다가 의문나는 점이나 정진 과정에서 부딪친 경계를 문답을 통해 스스로 해결토록 지도한다.

20여년전부터 삼매체질 선수행회를 열고 있는 제주 원명선원(064-755-3322)은 조사선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문답식 수행법을 지도한다. 좌선위주의 간화선을 강조하지 않고 '법문 듣기'와 문답을 통한 참구방법을 사용한다. 업장과 지혜의 유무에 관계없이 곧바로 자기 마음을 보고, 깨달음의 본래 그 자리를 이해하여 그 자리에서 생활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수행법이다. 도심선원의 전형으로 조명받고 있는 서울(02-732-0772) 및 부산 안국선원은 선 법문을 통해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시킨 후, 선원장 수를 스님으로부터 할구 화두를 받아 1주일 용맹정진한 후 개별적인 점검을 받는다.

현정선원(02-582-9371)과 무심선원(051-515-7226)은 '법문'이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이다. 특히 무심선원은 일대일 입실지도, 소참법문, 대중법문이란 공부행식을 통해 적극적인 공부를 반대하는 '무위법(無爲法)'을 강조한다.

보림선원(02-914-6187)은 거사(居士)의 설법과 좌선이 주요 공부법이다. 일상중에 공부할 수 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등 새로운 화두라는 의미의 '새끼말'을 제시한다.

김재경 기자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지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약 3Kg
- 지름: 20~30cm
- 원산지: 태국
-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장기에 보관 중
- 가격: 1개 35,000원
-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현제 백화점에서 상단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 중

▶ 판매 및 문의: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조영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울세탁)
 -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60,000
 - 두루막 130,000
2. 면, 광목(면물, 손염색)
 -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면물염색)
 -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 두루막 130,000
4. 무명(면물, 손염색)
 -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면물, 손염색)
 -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 두루막 140,000
6. 장삼
 - 고급모직 200,000
 - 경남계일모직 250,000
7. 가사
 -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대구 중구 서문 [동삼아파트 지하 공방] (지역판매점 모인)

34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 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방)

육임학(六壬學)교실

시간에 미술사 대신육임원에서 태산대전으로 시작합니다. 육임학(六壬學)은 이미 오천여년 전 현녀(玄女), 황제(黃帝) 시대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는 음양오행상생상극(陰陽五行相生相剋)의 법칙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보다 더 훌륭한 정단법(正斷法)은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도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나 흥재가 발생하면 뒤에 비로소 전문가의 감정을 받고자 하니 여러분이 이 학문을 체득하여 처세상의 좋은 지침으로 삼는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초반	중급반	연구반	명리반
기초수업 9명 정원	人事세밀정단 9명 정원	사과상진표 비전환용법	추명학

- 육임학을 처음 체득하시는 분!
- 기초를 체득하였으나 아직 활용을 못하는 분!
- 비전, 필법부, 간법, 사과상진표를 연구에 입문하고 싶은 분!

육임학관련서적

- 10권 천문역학(天文易學) 육임신과(六壬神課) 김홍경단법(吉凶正斷法)
- 11권 천문역학(天文易學) 육임신과(六壬神課) 실천강령법(實踐強令法)
- 12권 천문역학(天文易學) 육임신과(六壬神課) 세밀강령비전(細密強令秘傳)
- 16권 천문역학(天文易學) 육임신과(六壬神課) 초학상해(初學詳解)
- 18,19,20권 육임천문역(六壬天文易) 감경비전(鑑定秘傳) 上·中·下

추명학관련서적

- 1-1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입문(入門)
- 1-2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오의(奧義)와 응용(應用)
- 3,4,5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오비전(奧秘傳) 上·中·下
- 6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조후용신대법(調候用神大法)
- 7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행운간법(行運看法)
- 8,9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실천법(實踐法) 上·下
- 13권 천문자미운명학(天文紫微運命學)
- 14권 간명(命) 원칙과 실천(實踐)
- 15,21,22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적천수화해(滴天髓釋) 上·中·下

주소: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501-7번지 1층
자료구입 계좌: 대구은행 093-08-247393 (예금주: 손외경)
전화 053)627-0170 / 휴대폰 016-580-6654

편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겉누비면(면물)	면(면물), 광목	무명	모직	마(면물)	하복지-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막 250,000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막 180,000 ~ 250,000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매 60,000 ~ 셔츠 30,000 ~

대구 고수리미널 중간 동부명품점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 P : 011)549-8130